

Vol.231

2021 07

Open *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 (5)

박해와 선교현장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진주작전 40주년 특집
Project Pearl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진주작전 40주년을 맞이하여 삶의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다루기

폴 이스타브룩스 Paul Estabrooks (진주작전 참가 국제오픈도어 사역자)

진주작전은 확실히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의 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기적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매 단계마다 매 사건마다 초자연적인 주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다 마친 후에 되돌아보며 하나의 “큰” 기적이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끝까지 보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진주작전을 기획한 더그 스테픈(Doug Sutphen)은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그는 성경에서 사례와 원리들을 찾기 위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구약 느헤미야의 이야기에서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중에 비전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직접 연구했고 권위를 가지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장애물들은 참으로 우리 믿음에 도전이 됩니다. 느헤미야에게도 많은 반대자들과 비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그립바 왕에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행 26:19)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자기의 복음 전파 때문에 끊임없이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오픈도어 동역자 한 사람이 쿠바의 극심한 박해 받는 목사님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가 쿠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세요?” 그 목사님은 웃으면서 짧게 답했습니다. “전투가 없으면 승리도 없지요!” 또 이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다 나를 강하게 합니다.” 인도에서 55년간 섬 없이 섬겼던 지난 세기의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승리들을 축하할 영원한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들을 쟁취할 수 있는 시간은 해가 지기 전 짧은 몇 시간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 한 가운데 살며 일하고 있습니다.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의 전투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가로막는 그러한 일들을 펼쳐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 12:1-2)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리거나 걷거나 서거나 모두 믿음으로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에 관계없이, 어떠한 장벽 앞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수년간 해오는 “폭풍 속에 견고히 서기(SSTS)” 훈련에는 아침마다 참가자들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적으로부터 오는 장애물들에 맞설 수 있게 돕

는 큰 격려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전사가 이제 전투를 준비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사단에 대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나는 진리의 허리띠를 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사단의 거짓말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나의 마음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사 순전함과 거룩함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보호받게 하소서.

나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습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여 주님의 평강이 나를 통하여 비취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게 하소서.

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다.

내가 사단의 의심과 부정과 속임수의 불화살들을 피할 준비가 되게 하사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구원의 투구를 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사단이 내 생각 속에 진을 치지 못하게 하소서.

나는 성령의 검을 가집니다.

주님의 말씀의 양날 가진 검이 내 손에 들려 내가 적들에게 권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하소서.

믿음으로, 당신의 전사가 하나님 당신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나는 오늘을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CONTENTS

- 04 북한선교현장 - 탈북민 수기 - “신앙의 자유를 찾아” (5)
- 08 박해와 선교현장 - 부르키나파소
- 12 사역보고 - 부르키나파소 미셸 목사님에게 듣다
- 14 진주작전 40주년 특집 1- 요리사로 참가한 일생일대의 여행
- 18 진주작전 40주년 특집2- 중국 성도들이 전하는 진주작전 성경들 “PEARL BIBLES” 이야기
- 22 WWL2021 기독교박해국가를 위한 기도
- 23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

2021년 07월호 | 통권 231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이동현, 배춘선, 윤상덕, 안창호 이사
 사무총장 _정규일 목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최임경, 문민환, 전신애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 원 계 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 예금주 공동: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5)

- 되돌아 온 북한 -

마리아 자매

소위 ‘비법월경자’를 실은 수송차는 다리를 건너 북한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5년 만에 도착한 조국이다. 연고 없는 외지에서 강제로 팔려 다닐 때마다 꿈에서라도 돌아오고 싶었던 이곳, 그 누구보다도 만나고 싶은 자식과 가족들이 있는 나의 고향...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조국의 반역자라는 꼬리표가 죄사슬 사이에 붙어 있다.

5년 만에 바라본 조국은 참으로 보잘 것 없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5년이나 지났음에도 이 나라의 시간은 멈춘 것만 같았다. 길거리 사람들의 초라하고 색 바랜 옷차림도 여전했고 건축 현장에는 제대로 된 장비조차 없어 일꾼들이 수동으로 시멘트를 끌어올렸다. 심지어 보위부에서 우리를 인수한 간부들도 무릎이 튀어나온 낡은 바지를 입었다. 이 땅에서는 가장 번듯하게 차려 입어야 할 이들의 옷차림에도 열악한 결핍의 흔적이 녹아 있었다.

만감이 교차하는 이 정서에 뭐라 이름 붙이기도 전에 변방대 차가 멈추었다. 나와 함께 탄 죄수들은 쫓기듯 내뺨개쳐졌다. 오랜 방랑을 거치고 오랜만에 말아보는 조국의 냄새는 짝조름하면서도 어딘가 서러운 단내가 났다. 주변을 다 돌아볼 새도 없이 내 앞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서있는 보위부 소장은 우리의 존재를 경멸하듯이 처음부터 욕지거렸다. “이년들 어디 조국을 배반하고...” 차마 옮겨 적을 수 없는 온갖 ‘간나 새끼’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구류장으로 이송

되었다. 우리를 문 앞에 세워놓더니 나보고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최대한 고분고분한 자세로 “회사에서 일하다 왔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나도 모르게 남한식 말투가 튀어나온 것이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보위부 소장은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며 “야, 이 간나 새끼, 남조선말을 한다!”라고 쌍욕을 퍼부었다. 일전에 중국에서 공안에 잡혀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남한 말씨를 연습했던 이 습관이 이 나라에서는 나를 궁지로 몰아넣은 것이다.

나는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도 그럴 것이 보위부 심문 과정에서 ‘기독교 접했는가?’ ‘한국 드라마 봤나?’ ‘한국 사람 만났는가?’ 등의 질문은 반드시 나오는 민감한 이슈인데 이러한 분위기가 무색하게 아주 첫 장부



북한 감옥 삽화 (채풍기, 한통신문)



터 남한 말을 하고 있었으니 ‘난 이제 끝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날부터 그 구류장에서의 나의 별명은 남조선 말투를 배워가지고 돌아온 ‘괴물’이 되었다. 간수들은 감방을 다니면서 다른 죄수들에게 ‘이번에 괴물이 들어왔다’며 소문을 냈고, 죄수들은 ‘무슨 짐승이 들어왔나?’ 하고 수군거렸다.

처음 구류장에 실려 오면 죄수들은 모든 물건들을 빼앗긴다. 이름이 표기되어 창고에 보관되고 그 죄수가 이동될 때 물건들이 함께 이송된다. 눈에 보이는 소지품들을 빼앗은 뒤 그것도 모자라 몸 안에 불법 물품을 숨기지는 않았는지 철저한 검사는 기본이다. 간혹 잡혀온 죄수들이 돈이 되는 물건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금목걸이나 반지를 미리 먹어 두어 위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화장실에서 찾는 경우도 있었다. 나 같은 경우는 북한에 들어가기 직전, 끌려오는 차 안에서 중국 돈 천 원을 몸 안에 숨겨놓았다. 그러나 이곳 구류장에서 그런 술수는 어렵도 없었다. “몸 검신에서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은 간부는 우리를 건물 안의 한 공간으로 데리고 갔다. 첫 번째 방에서는 옷 안팎의 소지품을 구석구석 전부 점검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얼마나 지독하게 검사를 하는지 여자들만 따로 불러 가서 한 차례 검사를 더 하였다. 바닥에는 세수 솥에 물이 받아져 있었고, 한 여

자 군의가 노란 고무장갑을 차고 있었다. 우리는 지시에 따라 탈의를 하고, 바닥에 쭈그리어 앉았다. 여자 간수는 고무장갑으로 각 여자 죄수들의 몸 안에 손을 넣고 금품을 숨겼는지 구석구석 뒤졌다. 그렇게 한 사람의 몸을 검사하고 세수 솥에 손을 씻은 후 다음 사람의 몸을 뒤졌다. 생전 처음 보는 이 광경을 보면서 질병을 옮기거나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내 차례가 되었고, 내 몸을 검사하던 여간수는 점점 표정이 미묘해지더니 급기야 내 눈을 마주치고는 “이 간나 새끼, 어디서 돈을 숨겨 가지고는 시치미를 떼는가!”라며 난리를 피웠다. 아직 몸에 있던 중국 돈 천 원이 짙어진 것이다. 이로써 나는 돌아온 조국에서의 끔찍한 첫날을 보냈다. 남한 말씨와 숨겨놓은 돈 덕분에 첫날부터 열두 간나를 넘어선 욕설이 두 귀를 가득 채웠다.

모든 검사를 마치고 감방 번호와 죄수 번호가 주어졌다. 감방 안에 앉아있으면 벌써 소문이 짝 퍼졌는지 간수들이 다 나를 구경하러 왔고, 심지어는 과장된 남조선 말씨로 나에게 말을 걸며 조롱했다. 같은 방 죄수들은 그제서야 그 ‘괴물’이라던 작자가 나인 것을 알아채고는 그 남조선 억양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매를 맞을 수 있다며 걱정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중국에서의 바쁜 생활을 뒤로하고 끌려온 이곳에서는 도리어 하루 종일 부동자세로 앉아있지 않으면 안



구류장에서 강요되는 부동자세, (휴먼라이츠워치 홈페이지)

되었다. 새벽 다섯 시부터 저녁 열 시까지 하루 일과라고는 돌처럼 가만히 양반다리로 앉아서 두 손은 무릎 위에, 고개는 90도로 숙이고 있는 게 다였다. 조금이라도 몸을 들쭉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면 영락없이 간수가 와서 구둣발로 사정없이 걷어찼다.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답답하여 차라리 밖에서 노동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지만 그것도 자기 순번이 되어 취조를 받은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몇 차례 걷어차이고 나니 몸이 제 알아서 돌처럼 굳어졌다.

변소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다. 참을 수 없는 용의가 있는 경우에만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호실 ○번 소변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신청을 하였다. 마땅한 화장실 없이 같은 방 죄수들에게 말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는, 문도 없고 벽도 없는 구석의 공간에서 일을 해결했다. 식사도 형편없었다. 고대하고 기다리던 밥시간이 되었건만 나는 배급 음식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몇 손가락 안되는 밥에 시커먼 무시래기와 옥수수가루, 두부 쿡 찌꺼기 조금이 전부였다. 심지어 무시래기도 몇 년 동안 절인 것을 한 쪽아 처박아 놓았다가 죄수들에게 주는 식이었다. 그 역한 냄새와 생김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마 남한에서

는 한날 짐승에게도 주지 않을 수준의 음식일 것이다. 중국에서 어렵게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갈 때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것이 조국에 잡혀 돌아온 죄인의 양식이구나... 도저히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아 처음에는 나이 어린 죄수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세 끼를 굶고 나니 옆에 있던 죄수가 “그래도 입에 넣으라우. 여기에 하루이틀 있을 것도 아니고, 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소.”라며 권했다.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겠다는 의지

로 ‘이것이라도 먹고 견디어야지’하는 마음으로 입에 열심히 우겨넣었다.

한 동안 소식이 없던 내 위장이 갑자기 신호를 보내왔다. 평소 같으면 평범한 용변 시간이지만 이 시기만큼은 간수도 민감하다. 몸에 숨기어둔 중국 돈 천원 때문이다. 이미 발각된 마당인지라 이 돈은 나오는 순간 남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부동자세로 앉아있다가 손을 들어 “선생님, 돈을 빼야 하는데 화장실에 가도 됩니까?” 하고 여쭙었다. 잠시 후, 중국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밤낮으로 일하여 마련해 둔 귀중한 천 원이 더러운 오물과 함께 내 손에 쥐어졌다.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물로 비비고 비누로 깨끗이 씻었건만 더러운 냄새는 가시지 않아 간수들에게 욕을 먹고는 다시 화장실로 돌려보내졌다. 혹시나 해서 치약으로 다시 한 번 번번 돈을 닦았더니 신기하게도 냄새가 다 가졌다. 이 애석한 돈은 찢어지지도 않았다. 나의 피와 땀과 눈물이 녹아든 이 돈은 이제 영원히 내 손을 떠나 간수 선생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한없이 서러웠다.

그러나 순간 한 가지 피가 떠올랐다. 간수 선생이 돈을 전부 세 보지는 않겠지. 천 원 중 오십원을 순간

챙기고 나머지만 간수 선생에게 태연하게 바쳤다. 그리고 그 오십원 한 장을 돌돌 말아 담요 실밥으로 고정해서 마룻바닥 작은 틈에 돈을 재빨리 넣었다. 나중에 나갈 때 이 돈을 가지고 나가야지. 희미한 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 날부터 매일 마루 틈새를 보며 웬지 모를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 간수가 남자 죄수들 무리를 데리고 들이닥쳤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하는데 간수가 우리를 보고 “일어셋!”, “뒤로 돌아!” 하고 외쳤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일어서서 뒤로 돌아 벽에 고개를 박고 서있는데 지금부터 감방을 바꿀 것이니 각자 짐을 가지고 이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나는 아차 싶었다. 마룻바닥에 숨긴 돈을 챙길 겨를이 없었다. 그렇게 급작스럽게 방을 옮겼다. 지옥 같은 감방 생활의 한 줄기 위로가 사라졌다. 실망이 말할 수 없었다.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날, 용기인지 오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아무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고 소리쳤다. 내가 요청한 그 간수는 우리들의 모든 짐을 관리하는 보위부 직원이었다. 그분은 영문도 모르고 나에게 불려와서 ‘무슨 개수작을 부리려고 나를 찾았는가’ 물었다. 나는 겁도 없이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는 그 오십원을 찾아서 선생께 드리겠다고 하였다. 내가 가질 수는 없더라도 차마 마룻바닥



북한 보위부의 탈북 여성 취조 장면 재연 (북한정의연대 홈페이지)

에서 썩히고 싶지는 않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이 돈이 왜 그렇게 눈에 밟혔는지 모른다.

그 간수 선생은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개수작’치지 말라고 호통은 쳤으나 내가 돈을 찾아서 준다는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나를 그 이전 감방으로 데려갔다. 간수 선생의 한 마디에 새로 이사 온 남자 죄수들도 기계처럼 벌떡 일어나 벽을 보고 뒤돌아섰고, 나는 예전 내 자리에 있던 그 돈을 꺼내 간수 선생에게 바쳤다. 공돈이 생긴 간부는 대놓고 표지를 내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기분이 좋은 듯 보였다.

며칠 후, 드디어 나의 차례가 되어 취조를 받으러 갔다. 부동자세를 졸업하고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기뻐지만, 한편으로는 매를 맞아가며 조사를 받았던 아이들이 떠올라 다리가 후들거렸다. 판자 같은 것으로 맞았는지 온몸에 멍이 든 채 매일 밤 울면서 감방에 들어왔다. 나는 제발 좋은 간수 선생에게 조사를 받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다.

취조를 받는 방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지숙하고 무뚝뚝한 보위원이 앉아있었다. 나는 삼사일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그 간수는 나를 때리지 않고 점잖게 말로 취조를 했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자백서를 써야 하는데 특별히 강도나 절도같이 범죄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비법 월경자이다 보니 자백서는 자연스럽게 기행문이 되었다. 어디서 어떻게 팔려갔고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는데 맘속에 웬지 모를 회한이 차올랐다.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학대와 두려움, 공포 속에 끔찍한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반짝였던 희망의 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누군가와 나누거나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감옥 안에서의 취조 시간이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인구 : 20,903,000명

주요 종교 : 이슬람(55.6%), 기독교(23.8%), 부족종교(20.1%)

기독교 인구(카톨릭 등 포함) : 4,965,100명

기독교박해 순위 : WWL2021-32위, WWL2020-28위

기독교박해 지수 : 66점

주 박해 요인 : 이슬람의 억압,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부족종교적 적대감

부르키나파소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사헬지역에서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 중 하나이다. 북부와 동부 지역에 무슬림이 지배적이고 크리스천들은 중부와 남부에 집중되어 있다. 아프리카 전통 토착종교인들은 남부 지역에 지배적이다. 역사적으로 이 나라는 다양한 종교가 조화롭게 공존해왔고, 2012년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2015년 이후로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이 사헬지역으로 남하하면서, 이전과 같은 종교적 관용을 잃고 이슬람 인구가 과격화되고 있다. 현재 최대 박해요인은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 급증한 이슬람 무장세력의 활동이다. 말리와, 니제르와 국경을 접하는 지역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의 공격이 증가했고, 부르키나파소

북부의 소수 크리스천들은 피해자가 되었다.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은 마을을 공격하고 반기독교 캠페인을 하고, 북부지역 일부에서는 크리스천들을 주요 공격 표적으로 삼고, 교회문을 단도록 압박한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세력들에는 자마트(JNIM), IS서아프리카(ISWA), IS대사하라(ISGS), 알카에다-마그레브(AQIM), 알-무라비툰, 안사르디네, 보코하람 등이 포함된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은 부르키나파소에서 확실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들의 공격 대상은 크리스천 뿐 아니라 타협적인 이슬람도 포함되거나 이들의 파벌 싸움으로 인한 피해 역시 크리스천 공동체가 당하게 된다.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한 부르키나파소의 사망자는 2016년 80건에서 2019년 1,800건으로 증가했다고 보고됐다. 이슬람 무장세력의 마을 공격

으로 많은 부르키나파소 주민들이 거주지를 떠나 난민이 되고 있다. 2,000개 이상의 학교가 문을 닫았고, 3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2019년 1월 50,000명 미만이던 국내난민 수는 2020년 3월 765,000명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100만 명이 넘는다.

정치적 상황

부르키나파소는 프랑스 식민지에서 1960년에 '오토볼타' 공화국으로 독립했다. 현재의 국명 '부르키나 파소(정직한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는 1983년 쿠데타로 집권한 젊은 사회주의자 토마스 상카라 대통령이 개명한 것이다. 상카라는 국민에게 인기가 높았으나 1987년에 쿠데타로 피살되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블레즈 콩파오레 대통령은 1991년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했고 27년간 장기집권 후 2014년 10월 민중 봉기로 퇴진하였다. 2015년에 현 대통령 로슈 마크 카보레(Roch Marc Christian Kaboré)가 선거로 당선되었고, 2020년 11월 재선에 성공했다. 경제적으로는 전세계 157개국 중 144위에 해당하는 최빈국이다.

※ 사헬 Sahel 지역



사하라 사막의 남쪽 주변지대. 아랍어로 '변두리'라는 뜻. 서쪽의 세네갈 북부로부터 모리타니 남부, 말리 중부, 부르

키나파소 북부, 니제르 남부를 거쳐 동쪽의 차드 중남부(수단, 에티오피아 서부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까지 동서로 띠처럼 뻗은 지역. 가뭄이 들기 쉬워 "아프리카의 기아벨트"라는 말을 들을 정도. 세계 최빈국들이 집중되어 있음. 그중에서도 말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를 피해 접경국가인 부르키나파소로 들어온 난민들이 최빈민층을 이룸.

이슬람 지하드의 중심지가 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하드 파벌들이 활동. 사헬지대에 5,000여명의 프랑스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도 최근 지하드 세력의 폭력은 계속 증가. 현재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 차드, 모리타니, 말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음.

부르키나파소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 **개인 영역** : 이슬람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은 다른 사람과 신앙을 나눌 경우 적대적인 반응에 부딪힌다. 외딴 지역에서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자료를 집에 두지 말아야 한다. 이슬람 민병대들이 급습해서 수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종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지만 대부분 무슬림은 가족공동체로부터 개종이 반대되고 개종할 경우 위험하다. 기독교 상징물을 소지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 따라서 무슬림이나 전통종교에서 개종할 경우 신앙을 숨기거나 나누지 않는다. 다른 크리스천들을 만나는 것 또한 위험하다.

• **가정 영역** : 지하디스트들의 공격에 노출된 지역에서는 크리스천의 결혼식이나 명절도 축하하지 않는다. 마을지도자들이나 이슬람 민병대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여 숨어서 축하한다. 기독교로 개종한 자녀를 둔 무슬림 부모는 그 자녀가 기독교인과 결혼하는 것에



반대한다. 개종한 크리스천들은 자녀를 기독교신앙으로 양육하기 어렵다. 개종하면 상속권을 잃는다. 마을 지도자들과 지하디스트들의 눈에 띄지 않게 보통 구두로 기독교신앙을 전수한다. 무슬림 지배 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크리스천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이슬람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슬람을 가르치지 않은 교사들이 이슬람 민병대에 의해 살해된 사례들이 있다. 크리스천의 자녀들은 차별과 괴롭힘의 표적이 된다.

• **지역공동체 영역** : 크리스천 인구가 상당히 많은 수도를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크리스천들은 항상 표적이 된다. 특히 말리와 접경한 북부 지역에서 그렇다. 이곳에서, 특히 이슬람 민병대의 활동중심지인 쉘(Soum) 지방에서 이슬람 민병대들은 크리스천 납치와 치안유지군 공격들을 감행해왔다. 이슬람 설교자 말람 이브라힘 디코의 ‘안사르 알-이슬람’ 운동은 학교교사들에게 프랑스어 대신 아랍어를 가르치도록 위협하고, 이슬람 수업이 없는 학교들을 불태웠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집을 떠났다. 크리스천이 소수인 지역에서는 크리스천은 지역의 공동자원 이용을 제한당한다. 또한 아프리카 전통 종교 의식 참여를 요구 받는다.

• **국가 영역** : 무슬림이 다수인 시골 지역에서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상징물들을 공개적으로 보이게 하면 위협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무슬림인 공무원들은 개종한 크리스천들을 괴롭히고 차별하고 있다. 교회들은 토지를 구입하거나 기타 문제를 위한 당국의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크리스천들은 비방캠페인 또는 증오연설의 대상이 된다. 정



부는 여러 해 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반기독교 정서가 퍼지면서 크리스천들을 적으로 여기는 지하디스트의 생각이 자리잡도록 도왔다. 특히 이슬람이 강한 북부, 동부, 서부 지역에서 그렇다.

• **교회 영역** : 공식적으로 종교적 자유가 있고 크리스천들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지만, 교회들은 이슬람 민병대로부터 예측불허의 공격을 당할 위협 때문에 두려움을 겪는다. 북부, 동부, 서부 지역에서 교회들은 이슬람 무장단체들과 지역지도자들의 밀접한 감시를 당한다. 일부 전도활동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금지되었다. 기독교에 적대적인 지역당국자들은 교회 프로그램들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게 최대한 막는다. 크리스천 리더들은 괴롭힘의 표적이 된다. 특히 전통적인 개신교 연합단체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그렇다. 많은 무슬림 지역, 특히 시골에서, 청년 사역은 엄격히 금지된다. 청년에 대한 기독교 영향은 삶의 방식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더 큰 박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슬람 민병대들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성경책과 기독교 자료의 판매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WWL2021 박해보고

(2019년10월1일~2020년9월30일 기간)

*10,100은 정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

신앙 때문에 살해된 크리스천 수	38
신앙 때문에 납치된 크리스천 수	7
신앙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한 크리스천 수	100
크리스천 소유의 집과 재산이 공격, 파괴, 약탈, 몰수	10
크리스천 사업장이 공격, 파괴, 약탈, 몰수	10
신앙 때문에 집을 떠나거나 피신해야 한 크리스천 수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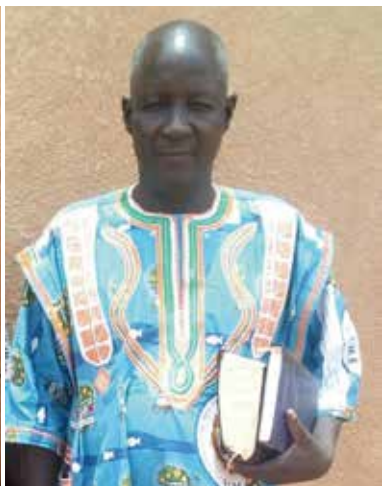
※ 2020년 2월, 야가(Yagha) 지방의 판시(Pansi)마을의 한 개신교 교회 예배 중에, 총을 든 괴한들이 난입하여 목사님을 포함한 24명의 성도들을 죽였다. 최소한 18명은 부상을 당했다.

※ 2020년 2월, 세바(Sebba)에서 지하디스트들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한 목사님의 사택에서 7명을 잡아갔고, 3일 후에 목사님을 포함한 5명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 2019년 12월, 동부 지역의 한 교회 주일 예배에서 최소한 14명의 성도가 총격으로 사망했다.



Lankoande 집사 2020년 2월 피살



Tindano Omar 목사 2020년 2월 13일 피살

2021년 박해보고

- 1월22일, 부르키나파소 남서부 방포라(Banfora) 시의 교차로에서 카톨릭 사제(Rodrigue Sanon)가 운전 중 실종 후 20km떨어진 위험지역의 숲에서 시신으로 발견.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의한 납치살해로 추정.
- 5월18-19일, 부르키나파소 북동부 틴 아코프(Tin-Akoff) 시 인근 마을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대원들이 세례식을 축하하던 사람들을 공격하여 15명의 남자성도들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 6월4일, 부르키나파소 북동부의 솔한(Solhan) 공동체마을에 대한 지하디스트의 공격으로 130명 이상이 사망. 같은 날 솔한에서 150km 떨어진 타다르야트(Tadaryat) 마을 공격에서 14명이 사망. 이 두 공격에서 크리스천이 타깃이 된 사례와 크리스천 사망자 수가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피해를 입고 피난 길에 오른.

부르키나파소 교회 역사

최근 몇세기 동안, 사헬 지역은 말리 제국과 모시(Mossi) 왕국과 같은 이슬람 국가들에 의해 지배를 받아왔다. 무슬림 통치자들이 이 왕국들을 지배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기들의 전통신앙을 지켰다. 예를 들어, 19세기까지도 모시 왕국 주민들 대부분은 무슬림이 아니었다. 기독교는 프랑스 식민지시절에 도입되었

고,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조상은 아프리카전통종교(ATR) 신봉자들이다.

기독교는 1896년에 프랑스와 함께 들어왔다. 로마카톨릭이 1900년에 들어와서 1901년 현재 수도인 와가두구(Ouagadougou 옛이름:오트 볼타)에서 선교를 시작했다. 개신교는 1920년대 초에 처음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의성회 교단 선교사들이 와가두구에서 1921년부터 활발히 활동을 시작하고 1933년에는 성경학교를 열었다. 1923년에는 CMA 소속 선교사들이 디올라소

(Dioulasso)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20세기 중반부터 계속해서 많은 토착 교회들과 새로운 교단들이 세워졌다. 사도교회(Temple Apostolic)는 최초의 독립적인 토착 교회이다. 부르키나파소의 주요 기독교 연합단체로서, 복음주의 교회들과 선교단체들 연맹이,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에 의해 1961년에 세워졌다.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 현황

정교회	0명(0.0%)
카톨릭	3,215,000명(64.8%)
개신교 기성교단	1,750,000명(35.2%)
독립교단	97,600명(2.0%)
무소속	7,500명(0.2%)
이중소속	-105,000명(-2.1%)
합계	4,965,100명(100%)

부르키나파소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성도들과 교회가 강건하기를,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코로나 제한으로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서, 필요가 공급되기를, 부르키나파소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의 폭력이 멈추기를 기도해 주세요!

부르키나파소 미셸(Michel) 목사님에게 듣다

오픈도어는 부르키나파소에서 이슬람 무장세력의 폭력으로 난민이 된 크리스천들을 위해 현지 교회와 협력하여 구호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현장사진과 함께, 부르키나파소 하나님의성회 교단 총회장 되시는 미셸 우에드라오고(Michel Ouedraogo) 목사님으로부터의 현장상황과 말씀을 전합니다.



이 교회는 매우 활발하고 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표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부르키나파소의 이 교회를 주시하고 모든 전략을 동원해서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 아세요? 우리에게는 막강한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키나파소 북부의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되지 않은 교회들은 텅빈 채로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이지요. 이슬람 민병대들은 교회들, 크리스천들, 온전한 무슬림들을 표적으로 삼아 일련의 폭력적인 공격을 시작했어요.



많은 마을에 이제 크리스천이 없습니다. 무자비한 살해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도륙하고 목을 베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이 이 북부 지역 대부분의 마을에 사람들이 없는 이유입니다. 교회 건물은 그대로 서 있어도 교회 안은 비었습니다. 성도들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머물게 되는 곳은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게 될 곳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해, 주님의 사랑에 대해, 주님의 은혜에 대해 말하는 것에 싫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 부르키나파소의 난민이 된 크리스천들이 직면한 또다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위한 경제적 제한조치들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먹일 음식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지역교회가 돕지만 수요가 너무 많아 지역교회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우리 형제들을 도우시다' 성도들은 자기들이 가진 적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옷, 신발, 난민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부르키나파소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난민이 된 형제자매들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더해, 오픈도어의 긴급구호가 부르키나파소의 난민 크리스천 수백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 어려운 시기, 죽음,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나는 곧 다시 올 것이다.”

▶ 부르키나파소 난민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901-884982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요리사로 참가한 일생일대의 여행

진주 작전 Project Pearl : 1981년 6월18일 100만 권의 성경을 중국 남동부 해안에 반입한 사건으로, '100만 권'은 중국가정교회가 요청한 수량이며, 작전명 '진주'는 성경의 비유에서 왔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마13:45-46)

진주작전을 수행하는 배에 승선하였고, 미국 오픈도어 CEO를 역임한 테리 매디슨(Terry Madison)이 회고를 통해 당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눕니다

가브리엘라 호에 성경책 선적

나는 브라더 앤드류의 오픈도어와 함께 20세기의 위대한 선교 모험 중 하나인 '진주 작전'에 참여하여 하루밤에 중국으로 백만권의 성경을 전달하는 일에 함께 하였다. 먼저는, 이에 필요한 수백만 달러를 모으기 위해 편지를 쓰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도전이었다.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말해주지도 않은 채 어떻게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보내주길 기대할 수 있으며 수백만 달러가 모일 수 있었는가? 하지만 신뢰함으로 우리의 후원자들은 후원금을 보내고 그 일이 가능하게 하였다. 성경을 전달하는 모험에 참여하는 20명의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은 나에게 큰 특권이였다. 수 개월에 걸쳐, 세계 각지에서 온 오픈도어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배를 타거나 이 여정을 준비하였다. 이 일은 보안 문제로 인해 가족에게조차 철저히 비밀로 지켜져야 했다.

출발할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고, 바다에서 실종될 수

도 있는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출발하기 며칠 전 우리에게는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 "지금까지 참 멋진 시간이었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행에 함께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이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는 배에 탑승하기 원하지 않았지만 또한 주께서 우리가 하길 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지 않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갔다.

예상치 못한 요리사 역할

여행이 시작되기 전 날, 20명의 선원을 위해 요리를 하기로 한 원래의 요리사 선원과 함께 장을 보러 갔다.



선원들-앞줄에 앉은 텍수염 형제가 테리



성경박스 위에서 찬양

나는 그가 엄청난 양의 식료품을 사는 것을 도왔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과 통화를 하는데, 그가 아내와 통화 후 말했다. "선장님께 나쁜 소식을 전해야겠어요. 처리해야 할 가족 문제가 생겨서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제가 요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나는, 그 요리사 일을 내가 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엄청난 느낌을 받았다. '저는 요리하는 거 싫어하고, 요리도 안하고, 요리할 줄도 모릅니다!' 내 마음 속 깊이 전쟁이 일어났다. 식료품을 차에서 내려놓고, 그는 선장에게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러 올라갔고, 나는 주님과 함께 씨름하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선장의 방문을 두드렸고, 이렇게 말했다. "선장님, 요리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제가 요리사 자리에 자원하여 섬기겠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저는 요리를 전혀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선장님은 "합격입니다" 라고 말했다. 절묘하게도, 이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마침 그의 아내가 몇 시간 동안 배에 탑승하고 있었다. 그녀는 "제가 일주일을 위한 하루 세끼 식단을 위한 메뉴를 적어 줄게요." 라고 말하고는, 엄청 큰 노란 노트에 나를 위해 21개 메뉴의 조리방법을 적어주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왕국인 '조리실'로 내려갔다. 팔을 펴면 조리실의 네 벽면을 만질 수 있었다. 그 정도로 조리실은 작았다. 그곳에는 4개의 화구가 있었고, 한 적한 곳에 정박했을 때는 꽤 괜찮은 조건이었다. 하지

만 항해를 할 때면 흔들리고 굴러다니는 상황 속에 어떻게든 음식을 요리해야하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스테이크 고기를 산 것이다. 선원 중 몇몇이 만드는 것에 은사가 있어서 55갤런짜리 드럼통을 바비큐를 할 수 있는 통으로 만들어서 숯을 넣고 배의 후미에서 바비큐를 해먹었다. 스테이크와 옥수수, 그리고 감자도 구워 먹었다. 홍콩 항구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배 고물에 앉아 스테이크를 먹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특별한 식사였다.

집에 돌아와 몇 주가 지나고 아내는 내가 요리사로 섬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는, "오~ 훌륭해요. 그럼 당신이 이제 요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네요." 나는, "이런, 여보, 내가 배에서 내리는 순간 기쁨부으심이 떠났소." 라고 말했다. 이렇게, 완전 아마추어 요리사인 내가 항해를 하며 20명의 선원들에게 하루 세끼를 해 먹일 수 있었다. 어떤 이들은, 아무도 죽지 않은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는 중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백만 권의 성경을 전하는 위험과 항해의 위험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요리를 먹고도 살아 남은 것이다!

보트가 고무밴드로 항해하다

1981년 6월 18일 저녁 9시 경, 성경책을 전달하는 날 밤, 우리는 모터가 달린 고무보트 세 대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 보트는 작은 엔진을 갖고 있었지만 1톤의 짐을 견인하기에 충분할 만큼 힘이 있었다. 나는

이 세 고무보트 중 한 대에 탑승했다. 두 명이 타고 있었는데, 내 역할은 밧줄을 잡아 물가에 기다리고 있는 중국 형제들에게 그것을 던져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보트에 타고 엔진을 켜는데, 다른 선원이 말했다. “엔진이 켜지지 않아요. 기어를 넣을 수가 없어요. 고무 밴드만 있다면...”

보트를 타기 몇 시간 전, 빌 선장이 모든 선원들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이 임무를 오늘 밤 수행할 때, 여러분 모두 기계나 밧줄이나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게 혈령하지 않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치거나 탑승하지 못하면 안됩니다.” 그 순간 나는 어릴 적 자전거를 탈 때, 어머니가 과일을 저장 하던 병에 사용하던 고무밴드를 꺼내 바지 아래 부분을 조여주던 것이 생각났다. 그렇게 하면 바지가 자전거 체인에 걸리지 않던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배에서 고무밴드 몇 개를 찾아, 손목과 발목에 차고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했던 것이다. 나는 동료 선원에게 말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지금 내가 고무밴드 네 개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고무밴드 두 개로 밤새 모터보트를 타고 달렸다. 고무밴드가 없었으면 우리는 밤새 바다 위에서 죽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 신비한 방법으로 고무밴드까지 공급하셨다.

이 여행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억은 성경을 전하던 날 밤이다. 중국의 성도들은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는데, 물살을 헤치며 걸어왔다. 우리의 작은 보트

에 달려있던 밧줄을 풀어서 그들에게 밧줄을 주었고 바로 내 눈으로 직접 그들을 보고 있었다. 정말 진짜 사람에게 전해준 것이다. 우리는 해안가에 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엄청난 양의 성경이 그들에게 온 것을 보며 정말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뻐다.

일생일대의 여행

중국에 하나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데 사용되는 특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내 삶의 하이라이트일 것이다. 수년 전에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을 때, 아내는 말했다. “오, 이런, 저는 나랑 결혼한 것이 당신의 삶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는데요.” 나는 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내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18살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것이에요. 그게 첫번째이고. 당신을 만난 것이 두번째. 세번째는 진주작전이에요.” 그것은 어떤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닌, 오랫동안 지속되어 기억에 남는 모험 중 하나이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지시에 따르며 기꺼이 기쁘게 우리의 삶을 드렸다.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고, 수감되거나 항해 중 실종될지도 모를 그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빌 틴슬리(Bill Tinsley) 선장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오픈도어 지부

에서 다른 일을 하던 우리 19명이 선원이 되어 그 일을 해낼 거라는, 태풍을 뚫고 항해를 하며 성경을 배달하는 놀라운 일을 해낼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것은 일생일대의 여행이었다. 우리는 오늘날 그 일을 할 수 없다. 아마도 우리가 그 일을 한 5-10년 이후에도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은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경계에 있었다. 중국에서 마오가 죽고, 덩소평이 막 정권을 잡기 시작했을 1978년 그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우리는 1981년 여름에 그 임무를 수행했다. 이제는 군대도 경찰보트도 전체적인 구조가 훨씬 더 치밀해졌고, 통제도 훨씬 심해졌다. 놀랍게도, 당시의 여건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성되어, 한 번 밖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다.

향수 성경

몇 년 후, 나는 미국 오픈도어 CEO로 섬기게 되었고, 어느 날, 한 중국인 스태프가 중국인 형제와 그의 아내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통역을 통해 나는 그에게 물었다. “진주작전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설명을 시작했지만 그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책상 서랍에서 진주작전 성경책을 꺼냈다(우리는 한 권씩 기념으로 소장하고 있었다.) 그 형제는 너무나 기뻐하며 흥분했다. “맞아요. 맞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통역하는 형제가 통역했다. 그 형제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당시에 신앙을 가진 이유로 수감되어 있었고,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누군가 그에게 이 진주작전 성경책 한 권을 주었다. 그는 이 성경책을 어디서 더 얻을 수 있는지 알기 원했다. 그는 그 성경들이 전국 곳곳의 창고에 보관되어 가정교회 네트워크 사람들이 와서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방수처리 된 50파운드의 상자 안에 성경책이 원래 포장했던 상태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매주 4명의 사람을 창고가 있는 도시로 보내 2상자씩 가져오도록 시켰다. 그러던 중 한 번은 4명의 형제가 성경과 함께 공간에 잡혀서 매를 맞고 성경은 모두 공중변소에 버려졌다. 공간은 그들

에게 그곳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명령과 달리, 그들은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밤에 다시 돌아와 그 공중변소 구덩이에서 가능한 많은 성경책을 끄집어 냈고, 공중 수도가에 가져가 최대한 씻어 가지고 돌아왔다. 나중에 그들은 그 성경책에 향수를 뿌렸고 “향수성경”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다!

하나님의 열정과 신실하심

진주작전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갖는 깊은 열정과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 방법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분의 선물이었다. 온갖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발각되고 배신당할지도 모르고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들이 널려 있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감독하고 계셨다. 정말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위해 우리와 그곳에 함께 계셨다. 불가능하든 어렵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깨달으며 우리 모두는 이 임무를 완수했다. 하나님은 중국을 향해 이 마음을 갖고 계셨고, 수백만명의 사람들의 손에 성경책을 전하도록 작정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부분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 우리 개인에게는 엄청나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이었다. 우리는 생각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시시하게 될거야!” 나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실함과 신뢰함을 갖고 살아간다.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기적을 행하시는 권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영원히 변화시켰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지 알게 되었다.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일어났고 공급하셨다. 심지어 고무밴드까지도!



성경을 실을 가브리엘라 호 제자



성경을 싣고 항행 중인 가브리엘라호

중국 성도들이 전하는 진주작전 성경들 “Pearl Bibles” 이야기

오픈도어의 진주작전(Project Pearl) 40주년을 기념하여, 1981년 6월 18일 하룻밤에 중국 남동부 한 해안을 통해 중국성경 100만권을 몰래 반입한 작전 당일의 과정과, 그 성경책들이 전파된 과정을 중국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합니다. 이 내용은 원래 2015년 '진주작전의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것을 약간 업데이트한 것으로 여기에 발췌 요약하여 실습니다.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진주작전이 수행된 해변

중국 찰리 형제

“저는 1978년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당시는 중국교회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죠. 저희는 주일마다 공책과 종이에 성경 구절들을 필사해야 했습니다. 도시 형제로부터 성경책 몇 권을 받아 부분별로 찢어 교대로 돌려가며 읽었고요... 그때 제가 살던 해안마을의 한 할머니 성도가 저에게, 생선파는 어부가 성경책을 찢어서 그 종으로 생선을 싸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생선장사에게 가서 그 책을 뜯지 말고 나에게 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 권당 1위안(RMB)에 팔았는데, 상자 안에는 90권의 성경책이 들어 있어서 90위안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달에 30위안 정도밖에 벌지 못했으니까요. 그는 매우 좋아했고 얼마 후 책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부는 밤에 배를 저어 가서 성경 두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팔고 나서 매번,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성경책을 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모든 성도들이 기꺼이 돈을 헌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많은 상자들이 해변의 조류를 따라 떠다니고 있었고, 어부들, 수영하는 사람들이 그 상자들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기독교 책이라는 걸 안 후, 어떤 이들은 아는 기독교인에게 거저 가져다 주었고, 어떤 이들은 교회 입구로 가지

고 와서 노점을 차리고 다른 물건들과 함께 권당 2위안에 팔았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성도들은 기꺼이 그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당국이 이 일과 관련해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판매와 배포는 조심스럽게 진행됐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많은 성경책이 우리 마을에 등장했는지 알아보았고,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10대 소년이 목격한 100권의 기적

샤오첸은 1981년 6월 18일 진주작전이 일어났을 때 그 해변에 있었습니다. “아주 어두웠어요. 바다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형이 저를 해변으로 불렀지요. 해변에는 500~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10대 소년이었죠... 깃발이 없는 거대한 배가 천천히 항구로 접근하던 기억이 납니다. 해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매우 불안해 보였어요. 그때, 배에서 작은 고무보트가 내려왔고, 형이 보트를 저어 가서 외국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얼마 후, 형과 다른 세 남자는 두꺼운 밧줄로 그 고무보트를 해안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팀을 짰어요. 고무보트에는 상자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해변에서 상자들을 내린 후, 그들은 상자가 가득 찬 다른 고무보트를 당기는 과정을 반복했어요. 상자가 수없이 많았



해변에서 성경을 나르는 중국성도들

는데, 형은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샤오첸의 형, 다첸이 말합니다: “저는 선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매우 키가 컸고, 손도 매우 컸어요, 우리는 악수를 하고, 그가 저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는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마 우리에게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수백 명의 형제들에게, 와서 막대기로 어깨에 메어 성경책을 운반하도록 부탁해 났었습니다”

샤오첸은 덧붙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작전이 진행된 후,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해변으로 달려왔어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형이 저에게 뛰라고 말했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해변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지요. 점점 더 많은 형제들이 오는 중이었거든요.”

다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은 군인들이 오기 전에 해변을 떠났어요. 배도 떠났습니다. 선장은 아마도 뭔가 평상시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배가 떠나면서 상자들이 바다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여전히 많은 상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군인들은 몇몇 형제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군인들은 또한 해변의 일부 성경책들을 모았고, 불태워 없애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

수백 명의 신자들이 이 날 밤 해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은밀히 또 다른 기적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진주작전 해변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감시

타워가 있었고, 해군기지 옆에 그 지역 전체에서 가장 높은 또 하나의 감시타워가 있었습니다. 해군과 민병대들은 매일 밤 그곳에서 보초를 섭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감시타워 당번들이 자리를 떠나 술을 마시러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새벽 4시쯤, 해변으로 달려왔지만, 그때는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그들은 즉시 더 많은 해군을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샤오첸은 지금도 감격하여 그 때 일을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바로 코 앞에서 많은 일을 했지요. 그들은 100만 권의 성경책들을 가득 실은 배를 위해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해변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다첸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은 산꼭대기에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많은 자매들이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젖은 성경의 배포

진주작전 이후 처음 2주 동안은 어부들과 수영자들이 건진 성경책들이 대부분 말라 있었지만 그후로는 너무 오랫동안 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상자를 통해 스며들었고 안에 있는 성경책들이 젖었습니다. 찰리 형제는 젖은 성경도 모아 다른 지역 성도들에게 나눠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젖은 성경들을 가져와 위층에서 햇볕을 쬐며 말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경을 말리는 데는 2~3일이 걸렸습니다. 그 후 성경책들은 더 두꺼워졌지만 여전히 좋았습니다. 여전히 읽기에 선명했습니다. 몇몇 페이지의 가장자리가 없어졌지요. 형제자매들이 그것들을 고치는 것을 도왔어요. 저희는 200-300개 정



젖은 것을 말려 두꺼운 진주작전 성경

도의 상자로 추정되는 많은 젖은 성경책들을 말렸습니다. 다... 다 합쳐서, 저희는 모두 600~700상자의 진주작전 성경책들을 나눠 주었습니다. 건조한 것과 젖은 것 모두요. 하나님은 저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저희를 위해 기도했고, 저희는 계속 할 힘을 얻었습니다. 중국 각지에 배포된 성경을 보고 저희는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역은 다른 여러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 그룹들을 부르셔서 협력하게 하여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외 형제자매들과 진주작전을 조직하기 위해서 (중국)도시 교회들을 부르셨습니다. 둘째, 배에서 성경을 건지기 위해서 해변 마을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셋째, 중국에 있는 다른 지역들에 성경을 배포하기 위해 그 마을에 사는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저희는 해외 형제자매들의 엄청난 노력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 어려운 세월을 통과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을 것이고, 저희는 오늘날의 부흥과 자유를 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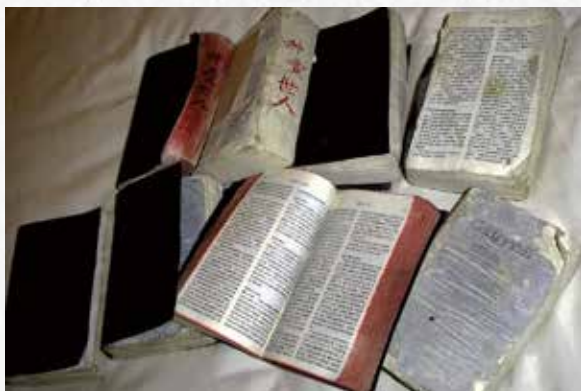
수천 마일 전달된 축복

진주작전 성경의 축복은, 작전의 배가 도착한 그 남동부 해안에서 4천 마일 떨어진 중국 북서부에까지 미쳤습니다. 한 선교적 교회 지도자로서, 루시 자매는 30년 전에 진주작전 성경을 받았습니다: “저의 성경은 해외에서 중국 남동부로, 중국 남동부에서 중국 중부로, 그리고 저희 지역으로 왔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아주 부유한 외국인이 하룻밤 사이에 중국으로 성경을 가득 실어 운반하기 위해 큰 배를 고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경책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그들로부터 성경 수 천 권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전, 아버지는 중국 중부에서

북서부로 이사를 가셨고, 그 황무지에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순회 설교자였기 때문에 종종 중국의 많은 장소들을 여행했습니다. 한번은, 중국 중부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 한 크리스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는 신비스럽게 성경이 든 가방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든 가방들의 기적

루시 자매가 전합니다: “그 형제는 기차역과 가까운 가게에서 일했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일찍 가게를 열었을 때, 문에 기대어 있는 커다란 검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성경책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는 흥분을 감추며 아무 일도 없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그 가방을 가져갔어요.....분명히 누군가 일부러 그를 위해 성경책들이 든 가방을 두고 간 것입니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몇 번이고 성경이 든 가방들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성경이 부유한 외국인이 고용한 큰 배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그 성경들을 아버지와 공유하기로 했지요. 이 지역에 성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천 권의 성경책들은 부피가 큰데, 어떻게 아버지가 수천 마일 운반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중국 북서부와 중국 중부를 오가는 기차에서 일하는 한 믿음의 형제를 알고 계셨는데, 고향으로 가실 때마다, 성경책을 운반하기 위해서 그 특정한 기차를 타셨어요. 그 형제는 꽤 용감했지요. 만약 성경책들



중국 곳곳에서 발견된 진주작전 성경들

이 발견되었더라면, 그는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기차가 중국에서 가장 외진 지방으로 수천 권의 성경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천 명의 중국 기독교인들이 3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성경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걸었던 이들 두 용감한 형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결과를 위해 고난 받다

신디 자매는 진주작전을 조직한 중국 성도들과 같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녀가 전합니다: “조사는 8년 정도 걸렸고, 두 형제는 2년 동안 수감됐죠. (외국)배가 성공적으로 (중국)해안을 통과하여 하룻밤 만에 백만 권의 성경을 중국에 가져왔습니다. 이진 정부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지요. 조사의 일환으로 진주작전에 연루된 한 지역교회 장로가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그때의 경험을 썼습니다. - 교회에서 신체 건강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구하기 위해 해변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저희는 새벽 4시가 넘도록 일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이 당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해가 뜬 후에 보안요원들이 왔습니다. 둘째 날, 그들은 저희가 해변에 보관했던 성경을 조사했고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은 이미 저희가 숨긴 후였습니다. 교회의 모든 관계자들은 수사를 받고 감시를 받고 체포되기까지 했어

요. 특히 진주작전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저희 중 세 명이 조사를 받았어요. 그 해, 저는 14일 동안 구금되었는데, 저희 가족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18차례의 조사 후에, 현지 및 지역 보안 관계자들은 성경이 어떻게 해외에서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저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심문을 받을 때마다 전 항상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총 17번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며 저를 때리고 발로 차고 욕설을 몇 번 퍼부었어요. -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진주작전 성경들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좋은 결과가 많았습니다. 중국에 대부흥을 촉진시켰습니다. 저희 지방 신자들은 많은 성경책을 받았고, 다른 여러 지방의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고, 마침내 자기만의 성경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찰리는 말합니다. “이 형제자매들은 고난을 겪었

습니다. 그리고 한 분씩 돌아가셨지요. 그중 몇 분들은 오늘날 중국에서의 대부흥을 목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히브리서 11:13)

중국 형제자매들로부터의 감사 편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샬롬!**

저희는 중국 교회들의 여러 형제자매들입니다. 저희는 중국 교회를 대표하여 중국 교회들의 사역을 돕는 친애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여러분은 40여 년 전 진주작전에 마음과 열정, 힘, 재정적 지원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교회들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희는 모든 중국 형제자매들을 대표하여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친애하는 형제자매들 드림

19

베트남



인구

9,840만 명 / 기독교인 890만 명

지도자

응우옌 푸 쯡 서기장/국가주석

박해지수 (변동 없음)



불교가 다수인 베트남에서 가장 강한 박해는 비전통적인 개신교회들과 토착종교를 떠난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일어난다.

많은 이들이 몽족과 같은 소수민족 출신으로, 사회적 배척, 차별, 공격들을 받는다. 가정집들이 때로 파괴당하고, 크리스천들은 마을에서 강제추방을 당한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특히 강한 공산주의 선전들 속에서, 압박이 가해진다. 2018년에 시작된 새로운 종교규제들과 온라인소통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들은 크리스천 활동을 제한한다.

오픈도어는 파트너들은 베트남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서적과 자료 제공, 제자훈련, 사회경제적 개발 프로젝트들, 옹호사역, 구호사역을 진행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크리스천들을 향한 의혹의 시선들이 크리스천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감사의 시선으로 바뀌도록.
- 신앙을 부인하라는 압박 하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강건해지도록.
- 젊은 크리스천들이 성경말씀의 지식에서 자라가며 삶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도록.

20

모리타니(아)



인구

470만 명 / 기독교인 11,000 명

지도자

무함마드 울드가즈와니 대통령

박해지수 (3점 증가)



모리타니의 엄격한 환경에서 크리스천들은 공개적으로 모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모리타니의 부족 문화에서 이슬람을 떠나는 것은 종교적 배신일 뿐만 아니라 부족과 가족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진다. 이슬람을 떠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은 기소를 당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되며 가정을 떠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 여자의 경우 무슬림에게 강제결혼을 당하거나 극심한 노예상태 취급을 당할 수 있다. 외국인들도 공개적으로 신앙을 표현하면 기소를 당할 수 있다.

오픈도어는 북아프리카의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과 성경 전달, 훈련 제공, 사회경제적 개발 프로젝트들, 옹호사역,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모리타니 법이 바뀌어서 이슬람을 떠나는 것이 더이상 불법이 되지 않도록.
- 모든 개종한 크리스천들이 강건하고 보호받도록, 가족들이 예수 믿는 가족의 결정을 존중하게 되도록.
- 성도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전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12:26

'월 10,000₩ 개인후원자' 500명,
'월 50,000₩ 후원교회' 100교회
기다립니다!

전세계적인 환경이 점점 더 기독교 박해지역의 성도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만들고 있고 축복받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담과 책임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오픈도어는 더욱 적극적으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오픈도어는 지정헌금 90프로를 박해받는 현지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사무실운영비를 위한 모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초창기와 같은 적은 수의 전임 인력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느라 다각적인 홍보와 개발업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오픈도어의 운영과 개발을 위한 월 1만원 정기후원자, 월 5만원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시고 주위에 소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름(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은행	출금계좌번호	
출금액	10,000₩	출금일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한국오픈도어선교회)

후원요청

코로나(COVID-19)긴급 구호

올해는 그동안의 코로나 여파로 인한 "기아 팬데믹"이 올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긴급구호에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주세요! 특별히 코로나 재확산 피해가 극심한 인도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원합니다!!

코로나후원계좌 SC제일은행 221-10-011008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파송선교사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해외 파송 선교사 (여성 사역 부분: ○명 / 일반 사역부분: ○명)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현장사역 참여
(제자훈련, 지도자 훈련, 구제·구호 사역 등)
- 여성 사역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사역 참여

> 지원자격

- 교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해외 여행 및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정통 교단 소속 교육부 인가 신학교 졸업 예정이거나 목회학 석사학위 (M.div)를 받은 분
-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는 분
- 여성사역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 (독신자 우대)
- 연령제한은 45세이나 예외 가능,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담당 교역자 1부, 담당 교수 또는 소속 단체장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 일반 건강검진 결과 (최근 2년, 면접 이후 제출)

> 기관 소개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참조

> 사역 조건

선교파송자는 선교회의 기준에 따라 사역 비용 및 현지 체류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모집 기한

사역자 모집완료까지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문 의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이메일 (info@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